

대행 스님

내 몸이 죽는것도 걸리지 않을때 아무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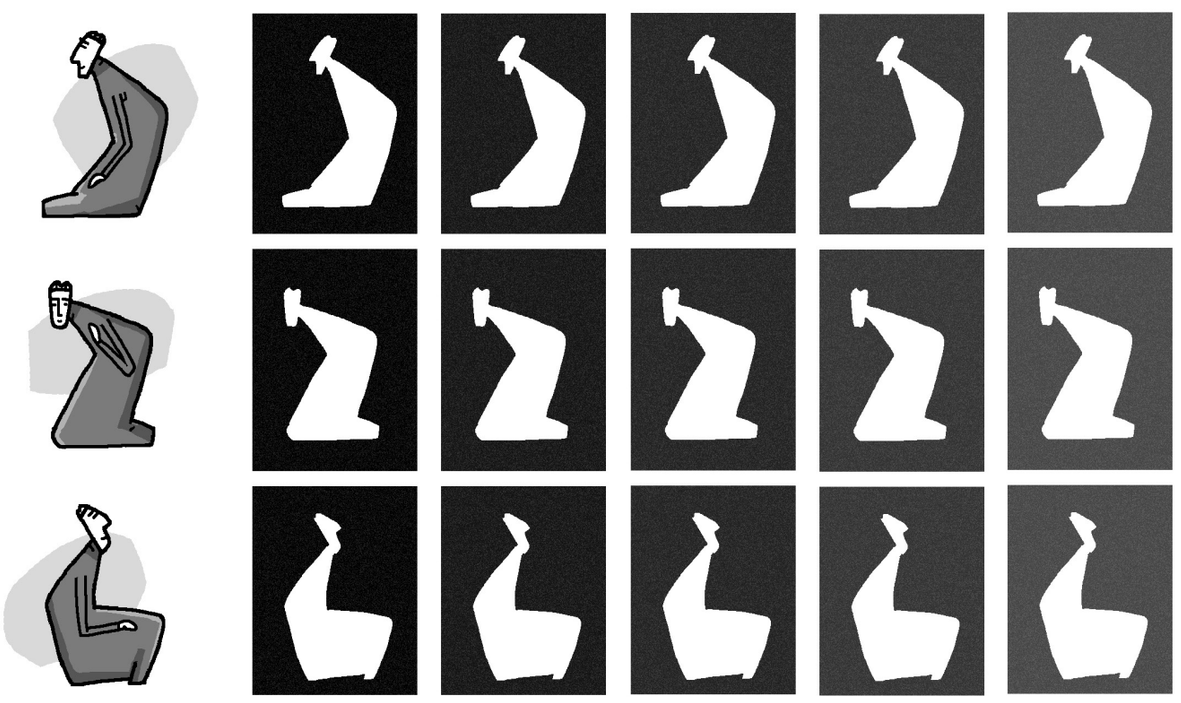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초보적인 마음 다루는 공부에 대해서 항상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한 분만 있다 해도요. 그리고 열 번을 들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시길 바라고요.

첫째, 우리가 인간이라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간 모습이면 누구나가 다 인간이라고 보지만 탈만 인간이지 진짜 인간이 되지 못했을 때는 나중에 다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네 과거의 모든 걸 모르거든 지금 현재 살아가는 거, 각본대로 너한테 다가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느니라. 그리고 지금 네가 하고 가는 걸 보면 미래에 올 것을 미리 알 수 있느니라. 그런데 누구더러 물어보느냐?" 그러셨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과거에 자기가 한 대로 각본대로 나오는 것이요, 지금 하고 돌아가는 거는 미래의 각본이 되어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세밀히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도 저렇게 사는 것도, 돈이 벌리는 것도 안 벌리는 것도 사실 우연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참말 어리석고 오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각자 사는 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대로, 또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것이 자기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각본대로 배역이 주어지는 탤런트처럼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어렵게 인간이 되었는데 인간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고(苦)'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집멸도 사제법에서 '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집'도 붙고 '멸'도 붙고 '도'도 붙고 이런 게 다 붙어요. 크고 작은 게 붙고, 좋고 언짢은 게 붙고, 언짢은 건 끊어 버리고 좋은 걸 붙게 해도 역시 언짢은 게 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각본대로 받고 있고 또 부딪치고 있는 것도 인간 자체, 생명의 근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면 여러 가지 아주 기묘한 이치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은 꼭 하고, 또 한 번 하고 넘어가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사람의 육신 속에 미생물들이 수없이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 미생물들이 있기 이전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을 끌고 다닐 때 어떠한 아귀가 들어오려고 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저항력을 발휘해서 필사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들일 건 들입니다. 그건 왜냐. 자기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토록 결사적으로 막는 것이고, 그렇게 침입 못 하게끔 하는 그 마음들이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을 이끌어 가는, 수십억 마리를 이끌어 가는 대표인이 그것을 업신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자기 위주로 아무렇게나 산다면 거기에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생각을 안 해 줍니다. 일을 하고는 있겠죠. 그러나 '에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구태여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이나 똑같죠. '구태여 뭐, 그렇게 결사적으로 우리 생명을 내걸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딴 데서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라는 게 극히, 두렵다면 두렵고 무섭다면 무섭고 자비하다면 자비하고 너그럽다면 너그러운 겁니다. 한 마음의 도리라는 것이 그렇게 너그러운가 하면 그것을 또 한번 뒤집어 본다면 그 체 없는 마음들이 악을 수없이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을 수없이 이루어서 그저 인연이 조금이라도 닿으면 닿는 대로 끌어다가 우환을 일으키고 가환을 일으키고 병고를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체험을 해 본 사람은 그걸 알겠지만 체험을 해 보지 못하고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내 팔자야. 왜 내가 이러냐." 하고선 한탄, 하소연만 하지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탄하기 이전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원력이 필요한 거지 한탄하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탄을 하다 보면 암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병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 그게 누구 탓이냐 이겁니다. 전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자기 업보죠. 그걸 과거의 업보라고 하지만 과거도 현실입니다. 왜? 자기가 현실에 몸을 가지고 나오면서 과거에 자기가 한 짓을 짊어지고 나왔으니 과거가 어딨습니까? 과거가 어딨느냐구요. 그래서 현실에도, 내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고정관념도 없고 고정됨도 없고 시간과 공간도 없다. 그러니 생사에도 끄달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하지만 죽은 게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몸뚱이가 가을 이파리 떨어지듯 헤딱 떨어졌지만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물질도 영원한 거죠.

그 물질이 영원하다는 것은 지수화풍의 바탕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수화풍도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허망하다 그러지만 바로 그 물질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물질이 없다면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생명의 영혼도 무효입니다. 아예 무질서한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아주 섬세하고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허망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다고 봅니다.

저 불이 밤이나 낮이나 켜져 있다면 '꺼진다, 켜진다' 이런 언어도 붙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멸이 없는 줄을 여러분의 자성불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본래 자성은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체험을 하고, 구르고 구르며 피나는 경험을 쌓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세밀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생멸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청정이라는 것도, 더럽고 깨끗한 것이 귀합돼서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면서 사량적으로 이론만 가지고 사는 처지가 돼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 여러분은 백지장 한 장 사이, 한 찰나에 알 수 있는 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발을 해서 문화 문명으로나 과학으로나 의학으로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전이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여러분이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등잔 밑이 어둡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화두 수행은 이미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계발이 되고 발전이 돼서 마음이 넓어진 데다가 과학적인 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편은 벌써 과거의 것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는 건너뛰어라 이거지요. 알고 있는 건 건너뛰어라! 하나와 하나가 딱 맞아서 돌아가야 곡식이라도 갈 수 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면 어떻게 물질이 갈려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신력으로는 벌써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수행을 옛날 그대로 하게 되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게 된다 이거죠. 이거

☞ 22면으로 계속

